



지점소식 ☆

● 서울지점

- 아시아나항공 감사패 수상 (2025년 실적 우수 대리점, 2026년 1월 14일)



- 한국 설 연휴 : 2.16 (월)~18 (수), 주말 고려시 2.14 (토) 부터 5 일간 연휴

▣ 도쿄지점

- 2026년 2월 11일 (수) : 건국기념일
- 2026년 2월 23일 (월) : 일왕생일

▣ 홍콩지점

- 2026년 2월 17일 (화) ~ 2월 19일 (목) : 춘절 휴무

▣ 타이페이지점

- 2026년 2월 14일 (토) ~ 22일 (일) : 춘절 휴무
- 2026년 2월 27일 (금) : Peace Memorial day

▣ 폐낭지점

- 2026년 2월 1일 : 타이푸삼, 힌두교축제 (폐낭, 쿠알라룸푸르 휴일)
- 2026년 2월 2일 : 연방 직할지정의 날 (쿠알라룸푸르 휴일)
- 2026년 2월 17일 ~ 18일 : Chinese New Year (전국)

▣ 싱가포르지점

- 2026년 2월 17일 ~ 18일 : Chinese New Year

▣ 호치민지점

- 2026년 2월 14일 (토) ~ 22일 (일) : Chinese New Year (TET Holiday)

▣ 중국 전지점 (충칭, 상하이, 광저우, 선전, 텐진, 칭다오, 따리엔)

- 2026년 2월 15일 (일) ~ 23일 (월) : 춘절 휴무, 대체근무일 2월 14일, 28일

▣ 상하이지점

- 긴급연락처 : 항공 채향자부장 86 155 0214 9791, 해운 공현주부장 86 188 2377 8753

▣ 광저우지점

- 기존 광저우발 인천행 BUP에 이어 일본 NTR, KIX행 BUP 판매개시 (26년 1월부)

POL	POD	CAN-ICN	ICN-NRT/KIX
CAN	NRT, KIX via ICN	D2, 4: KJ934 10:00~14:20	NRT: KJ194 D2457 / KJ198 D35
		D5: KJ932 10:00~14:20	KIX: KJ192 D357 / KJ182 D246

● 밀라노지점

- 특송사업 (배송대행서비스) 개시, 배송대행지 주소 : MAX LOGISTICS S.R.L. Milano, Italy
Viale Europa 59, Edificio 21, 20054, Segrate (MI), Italy

지역동향

● 서울지점

- 트럼프행정부 한국산 자동차, 목재,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%에서 25%로 인상 시사 - 미국 관세 리스크 다시 등장

● 홍콩지점

- 홍콩, AI 제품 수요에 힘입어 2026년 수출 8~9% 성장 전망 (홍콩무역발전국 -HKTDC)
- 홍콩 부동산가격 올해 7% 상승전망 (HSBC 글로벌투자리서치, 기준 3~5%에서 상향 조정)

● 도쿄지점

-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약 3개월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026년 2월초 조기 총선 실시
- 엔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, 원자재, 식료품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, 가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인상 → 서민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 크게 위축

● 타이페이지점

- 미국과 기존 상호관세율을 20%에서 15%로 낮추는 무역협정 체결
 - 단, 미국 내 반도체, AI, 에너지 산업 등에 총 5,000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전제로 하며 의약품, 항공기 부품, 특정 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 또는 대폭 면제될 예정

● 방콕지점

- 202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급증 →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인프라투자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
- 2026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약 2.0% 수준으로 전망되며, 가계 부채 증가와 구매력 약화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 전망

● 페낭지점

- 미국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기반 성장세는 둔화 예상되며 2026년은 내수 위주로 4.0~4.5% 내외 안정적 성장 전망

- 태양광 프로젝트 입찰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로 26년 1분기는 재생에너지 부문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전망

▣ 싱가포르지점

- 2026년 싱가포르 정부 주도하에 친환경 운송 및 탄소감축 정책 본격 확대
-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정책 안정성과 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지역 물류 허브 역할을 유지 중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화주들이 싱가포르를 환적 및 리스크 분산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확대

▣ 호치민지점

- 베트남항공, '세계 25대 안전한 대형항공사' 19위 랭크 – Airline Rating
- 중국 자동차 브랜드 오모다, 베트남 생산기지 완공 앞두고 엔지니어, 생산직, 기술직 등 수백명 채용, 약 11만 5천평 규모로 가솔린, 하이브리드, 전기차 연산 12만대 규모

▣ 상하이지점

- 2026년 4월 1일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부가세 수출 환급 취소 계획, 배터리 제품의 부가세 수출 환급 또한 기준 9%에서 6%로 인하 예정 (27년부터 부가세 환급 전면 취소)

▣ 광저우지점

- 중국내 GDP 1위인 광동성이 3년 연속 성장률 5% 목표 달성 실패, 25년도 GDP 성장률은 3.2%로 추정되며 전기차 등 신흥산업의 성장이 부진한 결과

▣ 밀라노지점

- 2026년 밀라노-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최, 한국은 쇼트트랙 포함 6개 종목에 선수 37명 참가 예정 (2026년 2월 6일 ~ 22일, 17일간)

▣ 파리지점

- 2026년 프랑스 GDP 성장률은 25년 대비 소폭 회복된 약 0.9% 전망

물류동향

서울지점

- 미주노선은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도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계된 프로젝트성 화물 수요 등 산업·인프라 중심의 항공화물 수요 유지
- 유럽노선은 중국발 Sea & Air 공급 확대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요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, 국적사 및 주요 외항사를 중심으로 운임과 스케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
- 2월에는 중국 춘절과 국내 설 연휴가 겹치면서 주요 생산 및 선적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항공 화물 수요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

홍콩지점

- 홍콩국제공항, 2025년 화물 처리량 500만톤 돌파 (507만톤, 전년비 2.7%, T/S 18% 증가)
- 중국세관 환적화물 지원제도 확대 : 중국 본토발 홍콩 경유 페루행 화물에 확대 적용

도쿄지점

- 2026년 국제항공화물수요는 +2.6%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되며 다만 항공기 증편과 공급 회복으로 공급 증가율이 약 3~4% 수준 예상되어 공급우위 시장이 형성될 전망 (IATA)
- 글로벌 해운시장은 공급 증가로 운임 변동성 확대 전망
- 2026년 컨테이너 선복량은 연평균 6~7% 증가하는 반면, 물동량 수요 증가는 3~4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항로 운임은 전년비 10~20% 하락 가능성이 있음
- 일본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항공보안이 강화 → 항공화물 및 보안대상 물품에 대한 X-Ray 장비를 활용한 폭발물 검사가 일반화될 예정 (기존 ETD 방식)

타이페이지점

- 일부 해운선사들의 노선축소와 지역운항으로 대만 출도착 해상 물류 지역 사례 발생, 2월 춘절 연휴전 항만 혼잡이 예상되며 선복 상황도 여의치 않아 정확한 사전 예약이 필요

방콕지점

- 2026년 태국발 이커머스 부문 연간 약 15% 수준의 고성장 유지 전망
- 태국국가선사협의회(TNSC)는 2026년 수출증가율 2~4%로 보수적으로 전망
- COSCO SHIPPING은 Laem Chabang Port를 중국산 자동차 제조 허브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 예정

- 현지 중소기업보호와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억제를 위한 조치로서 2026년 1월부 1,500 바트 (약 \$45) 이하 저가 수입품에 대해 관세 10% 부과

▣ 폐낭지점

- 폐낭, 코타키나바루 공항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항공화물용량 및 승객처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3 억링깃 (약 8,400 억원) 투자를 계획 (28년 완공 목표)
- 머스크는 1월 6일부터 아시아발 북유럽항로에 TEU 당 USD400 (FEU 당 USD800)의 성수기할증료 (PSS, Peak Season Surcharge) 부과

▣ 싱가포르지점

- 전자부품, 반도체, 배터리 관련 화물을 중심으로 항공수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운의 경우 설 연휴 전까지는 스케줄 조정으로 선복이 부족한 상황

▣ 호치민지점

- 호치민 항만 적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통 인도까지 2~3일 소요
- 전자부품, 반도체, 배터리 관련 화물을 중심으로 항공수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운의 경우 설 연휴 전까지는 스케줄 조정으로 선복이 부족한 상황

▣ 충칭지점

- 26년 1월, 충칭시의 수출입 총액은 685 억위안으로 전년비 12.3% 증가, 수출액 429 억위안으로 노트북이 전체 수출의 20.8%를 점유,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19 억위안에 불과하나 전년비 62% 증가 - ASEAN, EU, 중동이 3대 교역국

▣ 상하이지점

- 26년은 늦은 춘절의 영향으로 항공 및 해상 선적 물량이 분산되는 특징을 보여, 이전과 같은 춘절전 수요 급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춘절 전 소폭의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은 발생할 것으로 보임

▣ 광저우지점

- 북미행 항공화물은 일반화물 및 전자상거래물량 출하 재개로 전반적인 회복세, 운임 역시 점진적 회복 중이며 미서부행은 데이터센터 장비, Auto 및 전자상거래 화물의 집중 출하되고 있고 시카고행은 Auto, 알루미늄 코일, 전자담배, 전자상거래 물량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

- 유럽행 항공화물은 대설 영향으로 항공편 취소가 확대되어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반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 출하 점진 회복중이며 특히 암스테르담(AMS)향 대설로 공항 운영 차질과 항공편 대규모 취소가 발생하여 화물 적체 확대되면서 운임이 급등
- DSV 등 주요 글로벌 포워더들은 2026년도 해운시장은 무역갈등과 과잉공급, 항만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,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

◉ 텐진지점

- SEA & AIR one stop 물류 플랫폼 도입으로 텐진항과 텐진공항간 화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

◉ 선전지점

- 2026년 1월 전자제품,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요 증가로 선전국제공항 화물 처리량이 전월 대비 약 8% 증가
- 해운 역시 선전 서부 (SHEKOU, DACHAIWAN) 및 동부(YANTIAN) 항만의 컨테이너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% 증가하였고 춘절전 수출 물량 집중 예상

◉ 칭다오지점

- 2026년 1월 1일, 칭다오항 전자동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중국최초로 진공식 자동 계류 시스템 정식 가동 → 진공식 자동 계류 시스템이 선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한 후, 진공 흡착판으로 강력하게 흡착하는 방식



- 2025년 칭다오항 해상-철도(TCR) 운송량이 286.5 만 TEU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유지, 주요 목적지는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이란 등 중앙아시아 지역

◉ 밀라노지점

- 한국 설연휴 영향으로 2월 상반기 밀어내기 수요 등 항공수요 강세 예상

- 수에즈운하 운항선사 증가 추세 : CMA CGM '25년 12월부, Maersk/Hapag '26년 1월부
- 파리지점
 - 프랑스세관 검역 강화 영향으로 최근 Le Havre 항만 터미널내 컨테이너 적체 심화

주요 항공사/선사 스케줄 변동사항

서울지점

- 2월 중순 중국 춘절과 국내 설 연휴로 인한 장기간 휴무 영향으로 항공화물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 → 2월 하반기 항공화물 수요감소에 따른 항공기 감편이 비교적 큰 폭으로 진행될 전망

홍콩지점

- Hong Kong Air Cargo,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홍콩-싱가포르 화물기 추가 운항 (332F, D7)
- Hong Kong Air Cargo, 2026년 1월 10일부터 HKG-AMM 정기 화물기 운항 (D6)

방콕지점

- 2월 방콕-인천노선의 KJ 화물기 운항 횟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체 항공편으로 물량이 집중되면서 화물공급 확보 애로
- 아울러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망고 시즌 영향으로 일반화물에 대한 공급 부족 및 운임 상승 예상 - 2월 중순이후 출발 화물에 대한 사전 예약 및 운임 협의 필수

폐낭지점

- PEN-ICN : KE 화물기 주간 6회, KUL-ICN : KE 화물기 주간 2회, 여객기 DAILY 지속 운항

호치민지점

- 1월 말부터 ICN 행 VN 야간편 기존 Daily wide body 운항에서 격일 narrow body 항공기로 변경, 공급 Tight 한 편이나 운임 변동은 없음

상하이지점

- KJ, 인천행 화물기는 B74F 7회, B73F 3회, 주간 총 10회 운항중이나 춘절 기간중 일부 항공일정 변경이 예상되어 물량 진행시 사전 확인 필요

◉ 칭다오지점

- JINAIR (LJ), 유일한 중국 취항노선인 ICN-TAO 구간 2026년 하계부 운항 중단 예정

◉ 파리지점

- T-way (TW) : 26년 하계부 일부 요일 기종 변경에 따라 공급 증가 예상